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실태 연구

김행란[§] · 최배영¹⁾ · 유명남 · 김미희 · 강경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생활연구소 · 성신여대 가족문화소비자학과¹⁾

A Study on the Actual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Kim, Haeng Ran[§] · Choi, Bae Young¹⁾ · You, Myung Nim · Kim, Mi Heui · Kang, Kyeong Ha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¹⁾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tudy and analyze the actual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and to search for methods to activate local communities through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best suited for us. For this study, data listed on the internal web sites during August 2002 to October 2002 were searched and analyzed. In terms of statistical analysis, frequency, percentage, and χ^2 -test were operated using the SPSS 10.0 program.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utilized throughout the nation totaled to 8,906 cases. These utilized resources composed of 48.0% of tangible resources, 32.3% of environmental resources, and 19.8% of intangible resources and such utilized resources were in order of life-skill, scenery, ruins and relics, community activity, exhibition, and folklores. 2) Tourism, merchandising, and festival were the major types of utiliza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while education was the relatively minor portion in utilization type. 3) Compound linking of traditional knowledge resources, utilization type, and utilizing body showed links such as life skill-merchandising-civilian, ruins and relics-tourism-government, folklore-festival-civilian, scenery-tourism-government, and exhibition-education-civilian.

접수일: 2003년 8월 25 일 채택일: 2003년 9월 9일

§ Corresponding author: Kim, Haeng Ran, National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88-2 Seodundong Gwonseongu Suwon Gyeonggido Korea, 441-853 Tel: 82-31-299-0581, Fax: 82-31-299-0553, E-Mail: kimhr@rda.go.kr

Key Words: CBD(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WIPO, traditional knowledge, actual utilization of resource, local community activation, Sui generis system.

I. 서론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생명의 원천이자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s)을 지속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체결하였다. 이것은 전통생활양식을 기반으로 생물자원을 관리·이용해온 인간의 지식과 기술, 토착지역사회의 관습을 존중, 보존하고 나아가 그를 활용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하에 세계 각 국은 자국의 전통지식을 발굴하여 국제 사회의 공인을 얻음과 동시에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은 전통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유지·보존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 소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지방자치시대에 진입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어 전통지식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역마다 전통지식 자원을 활용한 특산물 개발, 축제 개최, 관광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통지식에 대한 이해와 논의가 부족하여 이에 관련된 국내 연구는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제 8조 (j)항에 '다양한 생물의 현지내 보전(in-situ)에 기여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지식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조문이 채택되면서 전통지식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자원

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전통지식 자원의 전반적인 활용현황, 활용유형, 사업주체 등에 대한 검토가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전통지식의 개념과 활용 및 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동향을 고찰한 후 전국의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전통지식 자원 이용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전통지식의 개념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토양-생태학적 영역(zone)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환경관리에 관련된 거대한 지식체를 생성해오고 있다. 이들 지식 저장고는 여러 이름들로 알려져 왔다. '토착지식' '전통지식' '토착기술지식' '지역지식' '전통문화지식' '전통생태지식' '전통환경지식' 등의 이름들로 그 개념의 사용자들에게 있어 서로 다른 의미를 암시해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용어들을 적용하는 학자들 간에 일치되는 점은 전통지식은 특정한 지역·문화 혹은 사회에 연관되며, 성격상 역동적이고, 자연체계와 가까이 인접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에 속하며, 현대적인 혹은 서구의 전형적인 과학지식과는 대조를 이룬다(John Studley, 1998)는 것이다. 이에 전통지식은 자연과 더불어 대대로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구축된 지식체로서, 생태학적·사회경제적·문화적 환경에 관련된 실천적 지식이며, 인간중심적·역동적·경험적·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전통지식은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며, 지역사회의 자원에 가치를 부여하고, 지역의 자원

을 재생산시킨다(WIPO, 2001).

국내적으로 전통지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향토지적재산은 우리 선조의 지혜와 생활의 멋이 담겨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이나 각 지역의 고유 산물 등을 현대사회에 맞게 재창조한 유·무형의 자산(황중환, 2000)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렇듯 유·무형의 자원으로서 인식되는 전통지식의 개념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2002)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통에 근거한 지식체계, 창작물, 기술혁신과 문화적 표현물로 정의 내려지고 있다. 또한 전통지식의 개념은 한 사회가 역사적 맥락에서 지역별로 고유하게 학습·창출·공유해온 지식체계, 생활양식, 규범으로서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그 속에 담긴 핵심가치로 정의(농촌생활연구소, 2002)되기도 한다. 이로 보면 전통지식은 자연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해온 사람들에 의해 대대로 구축된 지식체로 그것의 활용 결과는 기술과 유·무형의 창조물로 나타나며, 지역사회 환경변화에의 반응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지식의 완전한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형성된 사회의 문화적 영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전통지식의 각 요소들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 및 보호

전통지식이 자원으로서 활용되는 범주를 살펴보면 산업·과학·문학·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들로 대변된다. 즉 농업지식, 과학지식, 기술지식, 생태지식, 의료지식, 생물다양성관련 지식, 다양한 예술 형태로서의 민간전승표현물, 명칭과 지리적 표시와 같은 언어적 요소들, 그리고 동산(動産)의 문화유산들로 반영된다(WIPO, 2002). 특허청(2002)에서는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 범주를 전통의약, 전통식품, 농업 및 환경뿐만 아니라 전통미술, 전통음악 등의 전통예술 관련 민간전승물 등으로 보았으며, 농촌생활연구소(2002)에서는 전통지식 자원이 활용되는 범주를 크게 유형·무형·환경자원으로 분류(<표 1>)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된 '지식 재산과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정부간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들 중 하나는 이들 전통지식 자원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전통지식의 오용이 발생하게 되면 전통지식을 가진 지역사회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표 1>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 범주(농촌생활연구소, 200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 자원	생업기술	1.농업 2.어업 3.임업 4.잡업 5.수공업 6.축산·양봉업
	토종생물	7.식물 8.동물 9.미생물
	의약	10.약용식물 11.민간요법
	생활기술	12.의생활 13.식생활 14.주생활 15.생활용품
	유적·유물	16.서원·향교 17.고택·고궁 18.성곽·산성 19.능 20.누각·정자 21.종교유적 22.유적지 23.탑·불상·조각 24.장승·솟대
무형 자원	민속	25.춤·음악 26.놀이 27.설화 28.인물 29.세시풍속 30.평생의례
	공동체활동	31.동제 32.지역축제 33.재래시장 34.두레·계
환경 자원	경관 전시관	35.산·숲 36.강·호수·바다·해안·섬 37.계곡·동굴·폭포
		38.저수지 39.공원 40.농원 41.나무·풀·꽃·동물
		42.약수·온천 43.마을·거리 44.박물관·기념관 45.문화원

아니라 나아가 전통지식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듯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매카니즘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선진국은 지식재산권을 통한 보호를 주장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닌 개발도상국들은 기존의 지식재산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전통지식에 대한 자국내 독자적 시스템(*sui generis system*) 개발의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UNCTAD, 2002). 즉 국제적으로 전통지식 보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통지식에 지식재산권을 적용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법과 제도를 구축해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이나 새로운 법 체계를 통해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법적 토대 하에 우리의 전통지식을 다른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식의 이용료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시점에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 우리의 전통지식을 발굴하여 자원화, 목록화 함으로써 이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결국 문화적 맥락에서 창출(WIPO, 2003) 되는 전통지식 보호의 의미에는 지역사회의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의 양자를 모두 가능(CBD, 2002)하게 할 수 있는 제반 정책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전통지식 자원의 연구동향

전통지식 자원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국외와 국내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외의 연구동향

국외의 전통지식 자원 연구동향에 있어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와 세계지적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먼저 전자의 경우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이용에 있어 각 토착지역사회가 가진 전통지식의 중요성을 간파하여 토착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통지식보호의 법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키고 있다. 후자의 경우 1997년 이래로 전통지식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측면에 역점을 두고 전통지식의 용어정립, 보호 방안 및 보호체계구축, 전통지식의 목록화 및 검색체계 확립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표 2> 국외의 전통지식 자원 연구동향

구분	년도	연구 동향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 (CBD/COP)	1990 년대	○ 1992년 150여개국 CBD 협약 서명/ Working Group 구성 ○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적 이용 연구 ○ 국제적으로 토착지역사회 협력 강화제도 논의
	2000년 이후	○ 토착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참여 유도/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사례 및 독자적 체계 연구·논의 ○ 각국의 전통지식에 대한 관련법 조항 발표
세계지적 재산기구 정부간위원회 (WIPO/IGC)	2000년 이전	○ 1997년 세계지식재산이슈반 설치로 연구작업 추진 ○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지적재산권 역할 관련 현장조사프로젝트 연구
	2001년 이후	○ 전통지식용어 및 개념정립/지재권적 보호가능성 및 범위, 보호현황 및 보호체계 ○ 전통지식보호를 위한 <i>sui generis system</i> 의 요소 논의 ○ 전통지식의 검색 가능한 선행기술 포함, 국제정보검색체계구축 ○ 전통지식자원 활용촉진

2) 국내의 연구동향

(1) 전통지식의 발굴·목록화 연구

국내의 전통지식 자원의 발굴 및 목록화는 몇몇 정부기관과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문화’라는 개념으로는 국립문화재연구소(1971~1994)의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1980-2000)의 「한국민속의 세계」,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1996)의 「농촌의 전승놀이」 등이 목록화되었다. 전통지식 개념이 도입된 이후에는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1997)의 「전통지식모음집」, 행정자치부(1998~2000)의 「향

토지적재산조사발굴보고서」,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2000)의 「전통동양약물데이터베이스개발」 등이 있으며, 이들을 종합해보면 토종생물, 의약, 생활기술이 전통지식 자원으로 발굴된 목록화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표 3>).

(2) 전통지식의 자원화·산업화 연구

전통지식의 자원화·산업화 연구 역시 각 정부부처별로 추진되어져왔다. CBD협약이 체결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의 내용을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농촌진흥청 농

<표 3> 국내의 전통지식 발굴·목록화 건수

구분 ¹⁾	유형자원					무형자원		환경자원		계
	생업기술	토종생물	의약	생활기술	유적유물	민속	공동체활동	경관	전시관	
한국민속종합보고서 (1971-1994)	1,035	224	315	2,273	405	1,201	762	-	-	6,215
한국민속의 세계 (1980-2000)	166	-	75	737	453	443	117	-	-	1,991
전통지식모음집 (1997)	531	24,033	-	856	630	-	-	-	-	25,420
농촌의 전승놀이 (1997)	-	-	-	-	-	94	41	-	-	135
향토지적재산조사발굴보고서(1998-2000)	79	299	135	3,595	1,656	1,325	165	1,699	58	8,471
전통동양약물데이터베이스개발(2000)	-	-	12,634	-	-	-	-	-	-	12,634
계	1,811	24,556	13,159	6,961	2,514	3,063	1,085	1,699	58	54,866

¹⁾ 농촌생활연구소 분류에 의한 분석(2002)

<표 4> 국내의 각 부처별 전통지식 자원화·산업화 연구동향

구분	1990년대	2000년 이후
농촌생활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지식의 D/B화 및 개발가치 평가 연구 ○ 농촌 관습, 문화 및 의식주에 관한 전통토착지식 목록화 ○ 전통세시음식의 과학화 연구 ○ 농촌의 전승놀이문화 발굴·개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농촌의 전통지식기술의 자원화 연구 ○ 전통지식·기술의 상품화 연구 ○ 전통생활문화 산물의 보전 및 소득자원화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 천연기능성 소재 발굴 및 자원화 연구
문화정책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 모형개발 ○ 전통문화의 관광사업화 등 산업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전통고유기술, 지역특산물, 관광문화상품, 표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지적재산 시범사업 추진(향토지적재산을 상품화, 관광 자원 등으로 활용)

촌생활연구소는 90년대에 들어 CBD협약에 의거한 전통지식 자원 연구를 생활문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전통지식·기술의 자원화, 활용 및 상품화로 농촌 소득향상에의 연계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개발연구원은 전통문화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하여 전통문화의 상품화, 관광산업화 연구로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탐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6개 지역의 향토지적재산을 발굴, 2000년에는 향토지적재산 시범사업(18개소)을 육성, 향토지적재산의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전통지식은 앞으로 잠재적인 개발가치를 지닌 자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 국은 전통지식 자원의 발굴 및 목록화 연구와 활용을 통한 산업화로의 연계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연구에 정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조사범위

선행분류(<표 1>, <표 3>)를 참조하여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범주를 토대로 조사범위(<표 5>)를 설정하고 2002년 8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검색하였다. 검색대상은 중앙기관인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문화관광부·행정자치부·중소기업청의 웹사이트, 특광역시(기술센터 포함)·전국 9개도(도농업기술원 포함) 등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민간단체로는 한국관광공사·전국문화원연합회·전국 관광농원협회·농협·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로 한정하였다.

2. 조사체계

조사된 자료는 DB작성을 위한 분류틀(<표 6>)

<표 5> 전통지식 자원의 조사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자원	생활 기술	의생활/식생활/주생활/생활용품
	유적·유물	서원·향교/ 고택·고궁/ 성곽·산성/ 농/누각·정자/ 종교유적/ 유적지
무형자원	민속	춤·음악/놀이
	공동체활동	동제/ 지역행사/ 재래시장
환경자원	경관	산·숲/ 강·호수·바다·해안·섬/계곡·동굴·폭포/ 저수지/ 공원/ 농원/ 나무·풀·꽃·동물/ 약수·온천/ 마을·거리
	전시관	박물관·기념관/문화원

<표 6> DB작성을 위한 분류틀

자원중분류	자원소분류	사례제목	시도	지역명	키워드	지정여부	활용유형 ¹⁾	사업주체
· 표 5에 의한 중분류	· 표 5에 의한 소분류	· 사례명 작성	· 특광역시 및 도단위	· 시군 단위	· 제목과 내용 키워드 도출	· 문화재 및 권리 확보 상황	· 상품화 · 축제 · 교육 · 관광	· 민간 · 정부

¹⁾ 활용유형 : 상품화-상품가치를 지닌 개별품목/ 축제-지역 고유의 전통지식이 반영되는 공동체의 활동/ 교육-전통지식 자원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공간/ 관광-휴양, 레저, 체험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전통지식 자원

에 의하여 목록화 하였으며 DB내용은 자원중분류, 자원소분류, 사례제목, 시도, 지역명, 키워드, 지정여부, 활용유형, 사업주체로 구분하였다.

3. 분석방법

통계처리 및 분석방법으로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χ^2 -test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조사범위는 전통지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전통지식 자원 3개 대분류, 6개 중분류, 27개 소분류로 한정된 것이므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으며, 둘째 한정된 조사대상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였으므로 지역연구소, 민속자료기관 등의 자료를 폭넓게 섭렵하지 못하였다. 셋째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개별자원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유형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전통지식 자원의 복합적 활용측면까지 광범위하게 접근하지는 못하였다.

IV. 연구결과

1.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 현황

1)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통지식 자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통지식 자원은 총 8,906건이었다.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유형자원 48.0%, 환경자원 32.2%, 무형자원 19.8%

<표 7> 전통지식 자원 검색 현황

전통지식 자원			N	(%)	전통지식 자원			N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 자원	생활 기술	의생활	61	(0.7)	환경 자원	경 관	산·숲	518	(5.8)
		식생활	1,859	(20.9)			강·호수·바다·해안·섬	447	(5.0)
		주생활	8	(0.1)			계곡·동굴·폭포	254	(2.9)
		생활용품	927	(10.4)			저수지	103	(1.2)
		소계	2,855	(32.1)			공원	166	(1.9)
	유적· 유물	서원·향교	165	(1.9)			나무·풀·꽃·동물	239	(2.7)
		고택·고궁	274	(3.1)			약수·온천	75	(0.8)
		성곽·산성	161	(1.8)			마을·거리	246	(2.7)
		농	118	(1.3)			농원	124	(1.4)
		누각·정자	90	(1.0)			소계	2,172	(24.4)
종교유적		493	(5.5)						
유적지	117	(1.3)							
소계	1,418	(15.9)							
계			4,273	(48.0)					
무형 자원	민 속	춤·음악	209	(2.3)	전시관	박물관·기념관	500	(5.6)	
		놀이	211	(2.4)		문화원	196	(2.2)	
		소계	420	(4.7)		소계	696	(7.8)	
	공동체 활동	동계	257	(2.9)	계			2,868	(32.2)
		지역행사	981	(11.0)					
재래시장		107	(1.2)						
소계	1,345	(15.1)							
계			1,765	(19.8)	합 계			8,906	(100.0)

순이었으며, 이 가운데 생활기술 32.1%, 경관 24.4%, 유적·유물 15.9%, 공동체활동 15.1%, 전시관 7.8%, 민속 4.7%를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형자원 중 생활기술에서 식생활(20.9%) 생활용품(10.4%) 이, 유적·유물에서 종교유적(5.5%)과 고택·고궁(3.1%)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무형자원에서는 공동체활동인 지역행사(11.0%)가, 환경자원에서는 경관의 산·숲(5.8%)과 전시관인 박물관·기념관(5.6%)이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표 7>).

2) 시도별 전통지식 자원

시도별로 활용되고 있는 전통지식 자원은 경기 14.8%, 경북 13.7%, 강원 12.2%, 전남 9.5%, 경남 9.4%, 충남 7.6%, 충북 7.0%, 전북 6.8%, 서울 5.8%, 인천 3.6%, 제주 2.0%, 부산 2.0%, 광주 1.7%, 대전 1.6%, 대구 1.3%, 울산 1.0%로 나타났다(<표 8>).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활기술 관련 전통지식 자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으며 유

적·유물의 경우 대구, 광주, 울산 등에서 활용 비율이 높았다. 민속의 경우 울산, 광주에서, 공동체 활동은 대전에서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관의 경우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제주에서의 활용이 높았고, 전시관의 경우 서울에서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2.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유형

1) 전통지식 자원의 전반적 활용유형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유형은 관광 40.2%, 상품화 33.4%, 축제 18.6%, 교육 7.8%로 나타났다. 이를 특광역시·시·군의 지역단위별로 살펴보면 특광역시의 경우에는 전통지식 자원을 상품화와 관광의 유형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시와 군 단위에서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표 10>).

<표 8> 시도별 전통지식 자원 검색 현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N	518	175	107	323	147	142	84	1,320	1,090	627	680	607	850	1,222	838	176	8,906
(%)	(5.8)	(2.0)	(1.2)	(3.6)	(1.7)	(1.6)	(0.9)	(14.8)	(12.2)	(7.0)	(7.6)	(6.8)	(9.5)	(13.7)	(9.4)	(2.0)	(100.0)

<표 9> 시도에 따른 전통지식 자원 중분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χ^2
생활기술	223 (43.1)	45 (25.7)	28 (26.2)	82 (25.4)	72 (49.0)	44 (31.0)	35 (41.7)	501 (38.0)	211 (19.4)	273 (43.5)	282 (41.5)	154 (25.4)	225 (26.5)	369 (30.2)	248 (29.6)	63 (35.8)	*** 1073.26
유적·유물	62 (12.0)	34 (19.4)	27 (25.2)	50 (15.5)	24 (16.3)	17 (12.0)	19 (22.6)	126 (9.5)	96 (8.8)	83 (13.2)	124 (18.2)	16 (22.4)	174 (20.5)	297 (24.3)	135 (16.1)	14 (8.0)	
민속	29 (5.6)	13 (7.4)	2 (1.9)	2 (0.6)	17 (11.6)	13 (9.2)	10 (11.9)	54 (4.1)	26 (2.4)	16 (2.6)	27 (4.0)	59 (9.7)	76 (8.9)	39 (3.2)	23 (2.7)	14 (8.0)	
공동체활동	54 (10.4)	25 (14.3)	17 (15.9)	31 (9.6)	13 (8.8)	29 (20.4)	4 (4.8)	252 (19.1)	165 (15.1)	86 (13.7)	88 (12.9)	103 (17.0)	161 (18.9)	164 (13.4)	142 (16.9)	11 (6.3)	
경관	60 (11.6)	36 (20.6)	24 (22.4)	139 (43.0)	9 (6.1)	19 (13.4)	12 (14.3)	278 (21.1)	514 (47.2)	113 (18.0)	119 (17.5)	113 (18.6)	152 (17.9)	294 (24.1)	234 (27.9)	56 (31.8)	
전시관	90 (17.4)	22 (12.6)	9 (8.4)	19 (5.9)	12 (8.2)	20 (14.1)	4 (4.8)	109 (8.3)	78 (7.2)	56 (8.9)	40 (5.9)	42 (6.9)	62 (7.3)	59 (4.8)	56 (6.7)	18 (10.2)	
전체	518 (100.0)	175 (100.0)	107 (100.0)	323 (100.0)	147 (100.0)	142 (100.0)	84 (100.0)	1,320 (100.0)	1,090 (100.0)	627 (100.0)	680 (100.0)	607 (100.0)	850 (100.0)	1,222 (100.0)	838 (100.0)	176 (100.0)	

*** p < 0.001

<표 10> 지역에 따른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유형

구분	특광역시	시	군	전체	χ^2
상품화	541(36.2)	1,239(34.6)	1,196(31.2)	2,976(33.4)	84.11***
축제	252(16.8)	690(19.3)	716(18.7)	1,658(18.6)	
교육	176(11.8)	285(8.0)	235(6.1)	696(7.8)	
관광	527(35.2)	1,365(38.1)	1,684(44.0)	3,576(40.2)	
합계	1,496(16.8)	3,579(100.0)	3,831(100.0)	8,906(100.0)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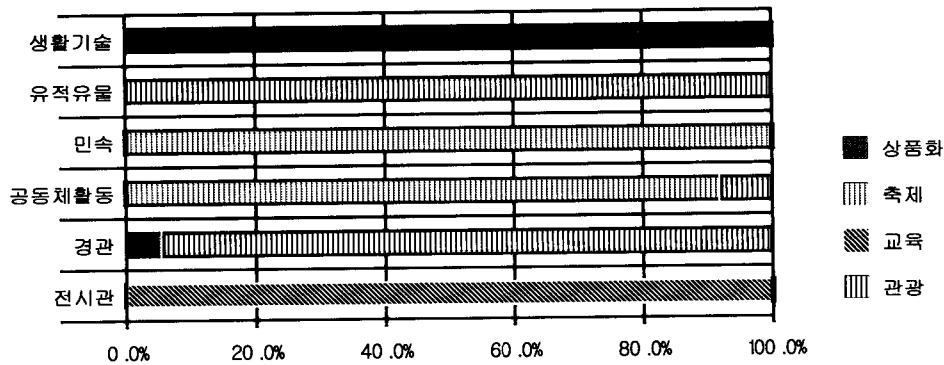
2) 전통지식 자원별 활용유형

전통지식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유형을 분석해 보면 <그림 1>과 같이 생활기술의 경우 상품화로 활용되고 있으며, 유적·유물은 관광자원으로, 민속은 축제로서, 공동체 활동은 축제와 관광자원으로, 경관은 상품화와 관광자원으로서, 전시관은 전통지식 자원에 대한 교육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3. 전통지식 자원 활용의 사업주체

1) 지역별 사업주체

전통지식 자원 활용의 사업주체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표 11>), 특광역시·시·군 단위 모두에서 민간(59.5%)주체의 전통지식 자원 활용 비율이 정부기관(40.5%)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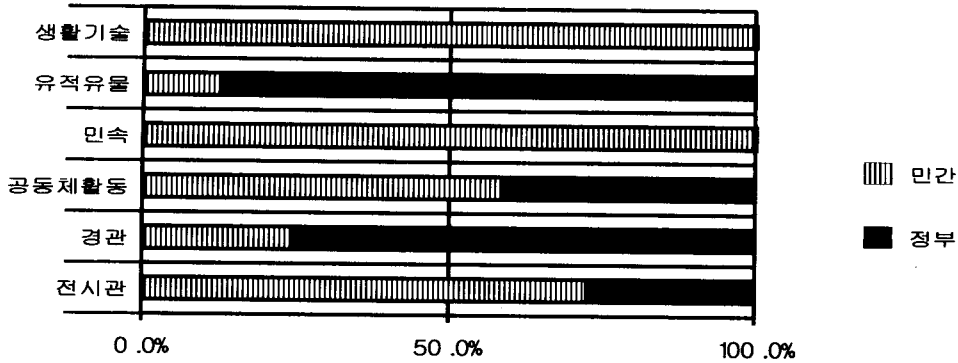


<그림 1> 전통지식 자원별 활용유형

<표 11> 지역에 따른 전통지식 자원 활용의 사업주체

구분	특광역시	시	군	전체	χ^2
민간	971(64.9)	2,180(60.9)	2,152(56.2)	5,303(59.5)	38.70***
정부	525(35.1)	1,399(39.1)	1,679(43.8)	3,603(40.5)	
합계	1,496(100.0)	3,579(100.0)	3,831(100.0)	8,906(100.0)	

*** p < 0.001



<그림2> 전통지식 자원별 사업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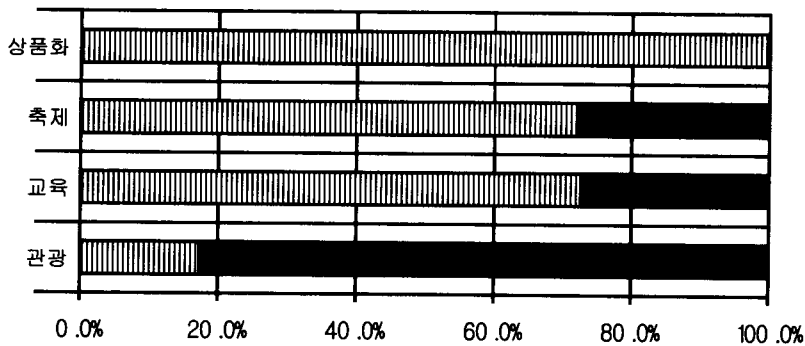
2) 전통지식 자원별 사업주체
 전통지식 자원별 사업주체는 생활기술, 민속, 공동체활동, 전시관의 경우 민간이 사업주체를 담당하는 비율이 큰 반면 유적·유물과 경관의

경우 정부기관에서의 사업주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생활기술과 민속에서의 민간 주체의 자원 활용과 유적·유물 자원의 정부 주체의 활용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그림 2>).

<표 12, 그림3> 전통지식 자원 활용유형에 따른 사업주체

구분	상품화	축제	교육	관광	전체	χ^2
민간	2,970 (99.8)	1,201 (72.4)	507 (72.8)	625 (17.5)	5,303 (59.5)	4794.33***
정부	6(0.2)	457 (27.6)	189 (27.2)	2,951 (82.5)	3,603 (40.5)	
합계	2,976 (100.0)	1,658 (100.0)	696 (100.0)	3,576 (100.0)	8,906 (100.0)	

*** p < 0.001



3) 활용유형별 사업주체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유형별 사업주체는 활용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상품화, 축제, 교육 부문은 민간 주체의 비율이 높은 반면 관광 부문은 정부의 사업주체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상품화와 관광 부문의 경우 전통지식 자원 활용 사업주체에 있어 민간과 정부간 비율에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표 12>, <그림 3>).

V. 결론 및 제언

이상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전통지식 자원은 총 8,906건으로 유형자원 48.0%, 환경자원 32.2%, 무형자원 19.8%였으며, 생활기술>경관>유적·유물>공동체 활동>전시관>민속의 순이었다. 이는 생활기술(식생활 및 생활용품)이 우리 고유의 전통지식 자원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위치가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무형자원 중에서는 공동체 활동인 지역행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각 시도에서 전통지식 자원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급격한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시도별로 전통지식 자원을 분석한 결과는 각 시도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자원의 활용이 상호 연관된 모습을 나타냈다. 즉 대구·경북과 같이 풍부한 유적·유물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 인천·강원과 같이 전통지식 자원을 담은 경관이 활용되는 지역, 광주·대전과 같이 민속이나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지역, 그리고 서울처럼 전시관을 통한 자원 활용에 중점을 두는 지역으로 대별해 볼 수 있었다.

둘째, 전체적으로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유형은 관광, 상품화, 축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교육 부문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활용유형은 지역단위별로도 차이가 있어 관광 부문은 특광역시 보다는 시나 군단위에서 활용 비율이 높았던 반면 상품화와 교육 부문은 특광역시에서의 활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전통지식 자원, 활용유형, 사업주체별 활용현황을 복합적으로 연계해 살펴보면 (<표 13>), 생활기술-상품화-민간, 유적·유물-관광-정부기관, 민속과 공동체 활동-축제-민간(민속)과 정부(공동체 활동)의 병행, 경관-관광-정부, 전시관-교육-민간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전통지식 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몇 가지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지식 자원 활용사업에 민간의 비중이 큰 것은 그 동안 전통문화의 명맥유지와 계승이 전통지식 보유자의 개인적 의무와 책임으로 여겨졌고, 기술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대를 이어 전승하는 차원에 머물러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표 13> 전통지식자원, 활용유형, 사업주체별 활용현황

전통지식자원		활용유형	사업주체 ¹⁾	
			민간	정부
유형자원	생활기술	상품화	☆☆	
	유적·유물	관광	☆	☆☆
무형자원	민속	축제	☆☆	
	공동체활동	축제	☆	☆
환경자원	경관	관광	☆	☆☆
	전시관	교육	☆☆	☆

¹⁾ 기호설명 : ☆ 사업주체 비율이 높음. ☆☆ 사업주체 비율이 매우 높음.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가 뜻을 함께 하여 전통지식 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제반 정책사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것이 국내의 수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국내·외적 권리보호에 대응한 활용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부합되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생물다양성 협약 발효 이후 전통지식 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 변화와 자원의 보존 및 활용에 따른 권리화/소유권 문제가 대두될 것에 대비(유명남 외, 2002)하여, 이후에 진행되는 국제적인 논의에 민간과 정부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활용유형별로 전통지식 자원의 활용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1) 전통지식 자원의 상품화는 각 지역에 따라 명맥이 유지되어 왔으나 그 규모나 수익성 면에서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통지식에 대한 중요성 확대로 토착지역사회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지역사회 특히 농촌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 유흥인력의 활용, 농업·농촌의 소득화 사업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전통지식 활용측면에서 관광·축제·교육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상품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축제나 관광지에서의 기념상품 및 향토음식 개발, 지역 박물관·기념관 등에서의 교육용 자료개발, 전통지식 자원 활용 개발상품의 홍보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품화와 연계하여 권리 인증은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지식재산권 제도 하에서는 전통기술 자체를 권리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학성 구명 및 제법 개선 등으로 권리화의 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전통지식 자원의 권리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법규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권리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요구된다.

2)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관광 부문은 정부기관의 참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간과의 연계 없이는 전통지식 자원으로서 유적·유물이나 경관이 지닌 원형의 본질적 가치를 잃기 쉬우므로 민간이 지니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도입하여 유적·유물에 담긴 창조의 힘과 자연경관의 조성 및 유지에 관한 선인들의 노하우의 지식과 기술을 발굴, 이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시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지역행사의 축제는 대표적으로 민간과 정부 양자에서 주도되고 있으나 이러한 지역행사들이 과연 양적인 팽창만큼이나 질적으로도 전통지식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를 재검토해야 할 시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별로 축제 및 이벤트 행사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며, 민간의 벤치마킹 사업으로 테마 발굴 및 프로그램이 확산될 것이므로, 이때 지역·시기·스토리 등의 다양화를 통한 차별화된 축제로의 발전의 중심에는 우리의 전통지식 자원이 주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3) 전통지식 자원 활용 및 사업의 궁극적인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으므로 교육 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현재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문화원 등의 전시관은 비록 규모에 있어서는 작지만 전통지식 자원의 보고(寶庫)임에는 틀림없으며, 그것의 잠재적 교육 가치는 매우 높다. 앞으로 이곳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통지식을 경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차세대에게 전통지식 자원을 활용한 아이어디 공모전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통지식을 활용한 고유의 신기술 발굴·개발의 기초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의 보존 및 유지를 이끌어온 전통지식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보급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 지역민의 삶을 대변하는 전통지

식 자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전통지식 자원 활용의 선행 작업으로 발굴, 목록화 작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들이 생존해 있을 때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WIPO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전통지식의 DB화 및 전자도서관 구축에 대비하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전통지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통지식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해 얻어진 자원 활용의 지식이나 기술을 DB화하고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총체적인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DB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산발적인 DB화가 아닌 전국적으로 정보관리가 가능한 DB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제정보센터와의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 상호정보교환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김행란 외, 2002).

끝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전통지식 자원에 대한 연구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종합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국제기준에 맞는 전통지식의 명확한 분류체계 및 목록화에 관한 연구가 시도되며, 국제적으로는 전통지식 자원의 이익공유 및 활용 촉진의 제도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전통지식의 국제 지식 재산권화, 자국내 독자적시스템(sui generis system) 도입에 대비한 기반 연구도 요청된다.

【인 용 문 헌】

<문헌 및 자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2001). **한국민속의 세계** (전 10권). 서울 : 창작마을.
- 김행란 외(2002). **전통지식의 국제적 논의동향 및 대응방안. 세계농업규범 관련 쟁점대응 심포지엄 자료집.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연구소(1997). **전통지식모음집**(전 5권). 수원 : 상록사.

- 농촌생활연구소(1996). **농촌의 전승놀이**. 수원 : 상록사.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71-1994). **한국민속 종합조사보고서**(전 12권).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울대학교(2000). **전통동양약물데이터베이스개발. 보건복지부.**
- 신정은(2002).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논의 동향 및 전망. **지식재산 21 통권 제 71호. 특허청.**
- 유명남 외(2002). **농촌전통지식기술의 자원화 연구 동향 분석. 2002 농촌생활과학연구보고서.** 수원 : 상록사
- 행정자치부(1998-2000). **향토지적재산조사 발굴보고서**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충북, 충남.
- 황중환(2000).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방안. 농촌생활연구소 심포지엄자료집. 농촌생활연구소.**
- CBD(2002). **Traditional Knowledge an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ttp://www.biodiv.org>.
- John Studley(1998). **Dominant knowledge systems and local knowledge.** <http://www.mtnforum.org>.
- WIPO(2001). **Matter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an overview. WIPO/GRTKF/IC/1/3, Annex3.**
- WIPO(2002). **Elements of a sui generis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GRTKF/IC/3/8.**
- WIPO(2002). **Traditional knowledge-operational terms and definitions. WIPO/GRTKF/IC/3/9.**
- WIPO(2003). **Composite study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WIPO/GRTKF/IC/5/8.**
- UNCTAD(2002). **Protecting Traditional Knowledge. International Seminar on Systems of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 <인터넷 웹사이트>
강원도(<http://www.provin.kangwon.kr>)

강원농업기술원(http://www.gangwon.rda.go.kr)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http://www.agro.seoul.go.kr)
경기도(http://www.kg21.net)	울산광역시(http://www.metro.ulsan.kr)
경기농업기술원(http://www.nongup.kyonggi.kr)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http://www2.rda.go.kr/rural/sp08)
경상남도 (http://www.gsnd.net)	인천광역시(http://www.inpia.net)
경남농업기술원(http://www.knrda.go.kr)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http://user.chollian.net/~vvsij)
경상북도(http://www.gyeongbuk.go.kr)	전국관광농업협회(http://www.ktfarm.or.kr)
경북농업기술원(http://www.nongup.gyeongbuk.kr)	전국문화원연합회(http://www.kccf.or.kr)
광주광역시(http://gwangju.go.kr)	전라남도(http://www.provin.jeonnam.go.kr)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http://www.agri.gjcity.net)	전남농업기술원(http://www.jares.go.kr/index.html)
농림부(http://www.maf.go.kr)	전라북도(http://www.provin.jeonbuk.kr)
농촌진흥청(http://www.rda.go.kr)	전북농업기술원(http://www.farm.jeonbuk.kr)
농협중앙회 (http://www.nongup.or.kr)	제주도(http://www.cheju.go.kr)
대구광역시(http://www.daegu.go.kr)	제주농업기술원(http://www.agri.cheju.kr)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http://www.metro.taegu.kr/rural)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knto.or.kr)
대전광역시(http://www.metro.daejeon.kr)	중소기업청(http://www.smba.go.kr)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http://www.nongup.daejeon.go.kr)	충청남도(http://www.provin.chungnam.kr)
문화관광부(http://metro.daejeon.kr)	충남농업기술원(http://www.chungnam.rda.go.kr)
부산광역시(http://www.metro.busan.kr)	충청북도(http://www.provin.chungbuk.kr)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http://www.nongup.busan.kr)	충북농업기술원(http://www.ares.chungbuk.kr)
산림청(http://www.foa.go.kr)	한국관광공사(http://www.kccf.or.kr)
서울특별시(http://www.metro.seoul.kr)	행정자치부(http://www.mogaha.go.kr)